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위한 제안
평화문화를 만들어 가는 세계시민교육



목차

핵심 요지	03
-------	----

1	지금, 교육과정 논의가 왜 중요할까요?	
1.1	10년 뒤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06
1.2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어떤 교육이 필요할까요?	07
1.3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08
1.4	현재 우리 교육과정과 교과서는 어떠한가요?	09

2	새로운 교육과정은 어떤 가치를 담아야 할까요?	
2.1	미래 사회에 부합하는 교육의 가치, 목표, 인간상이 필요합니다.	16
2.2	평화문화를 만들어 가는 세계시민교육이 필요합니다.	20
2.3	세계시민성을 길러 평화문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21

3	선언이 아닌 실제 변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3.1	학생 삶과 학교 문화의 변화를 이끄는 교육과정이어야 합니다.	24
3.2	시민교육의 다양한 주제는 통합적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25
3.3	2022 개정 교육과정 실행 이전에 실천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26


후기	27
----	----

핵심 요지

오늘날 세계는 더욱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급속한 기술 혁신과 글로벌 경제체제의 변화 속에서 우리 삶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로 우리는 이를 고통스럽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미래 사회에서도 능동적이고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으려면 어떤 능력을 길러야 할까요?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 지역, 국가, 세계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며, 연대와 협력을 실천하는 역량을 길러야 하지 않을까요?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은 미래 세대를 위한 새 교육과정에 꼭 포함되어야 할 교육의 가치, 목표, 인간상, 핵심 역량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p>가치</p> <hr/> <p>평화문화를 향한 세계시민성</p> <p>목표</p> <hr/> <p>평화를 실천하는 세계시민 양성</p> <p>인간상</p> <hr/> <p>평화를 실천하고 생태 친화적인 삶의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미래 세계의 평화와 지속 가능성에 이바지하는 포용적인 세계시민</p> <p>핵심 역량</p> <hr/> <p>불평등, 차별, 혐오, 폭력, 분단의 원인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그 극복을 위해 공감, 연대, 협력을 실천하는 세계시민 역량</p>	
--	---

아울러 이 제안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학생의 삶과 학교 문화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실행 원칙을 제시합니다.

첫째, 평화문화를 만드는 세계시민교육이 전 교육과정의 실행 원칙이자 모든 교과 구성의 핵심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세계시민교육은 추상적인 거대 담론을 제시하기보다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자기 삶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을 위한 대안을 찾아 실천하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셋째, 시민교육의 다양한 주제는 통합적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1

지금, 교육과정 논의가 왜 중요할까요?

- 1.1 10년 뒤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 1.2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어떤 교육이 필요할까요?
- 1.3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 1.4 현재 우리 교육과정과 교과서는 어떠한가요?

지금, 교육과정 논의가 왜 중요할까요?



1.1

10년 뒤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날 인류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교류하며 소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삶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불평등과 차별, 혐오와 폭력이 더 악화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 생태계 파괴가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한반도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남북이 대치하는 분단 상황과 동북아 평화라는 문제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OECD는 <교육 2030> 보고서에서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직면할 세 가지 중대 과제에 주목합니다.

첫째



기후변화 같은 환경 문제의 해결이 더욱더 시급해집니다.

둘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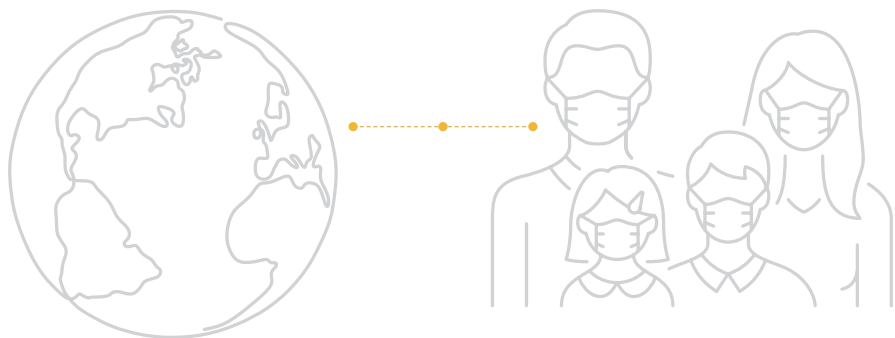
세계적 경제 통합이 가속되면서, 글로벌 경제위기 발생 위험이 늘어납니다.

셋째



대규모 인구 이동으로 사회문화적 다양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불평등과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정부 불신, 전쟁과 테러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런 미래를 내다보면서 우리는 삶의 방식과 우리 사회를 되돌아봅니다. 교육의 근본 목적과 가치를 다시 묻고, 학교의 의미와 교사의 역할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래 사회에서 주체적이고 책임 있는 시민으로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유네스코는 21세기에 지식과 함께 상호이해, 의사소통 능력 같은 역량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측하면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학습을 강조합니다.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다음과 같은 지식과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다음과 같은 세계시민 역량이 필요합니다.

“ 불평등, 차별, 혐오, 폭력, 분단의 원인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그 극복을 위해 공감, 연대, 협력을 실천하는 세계시민 역량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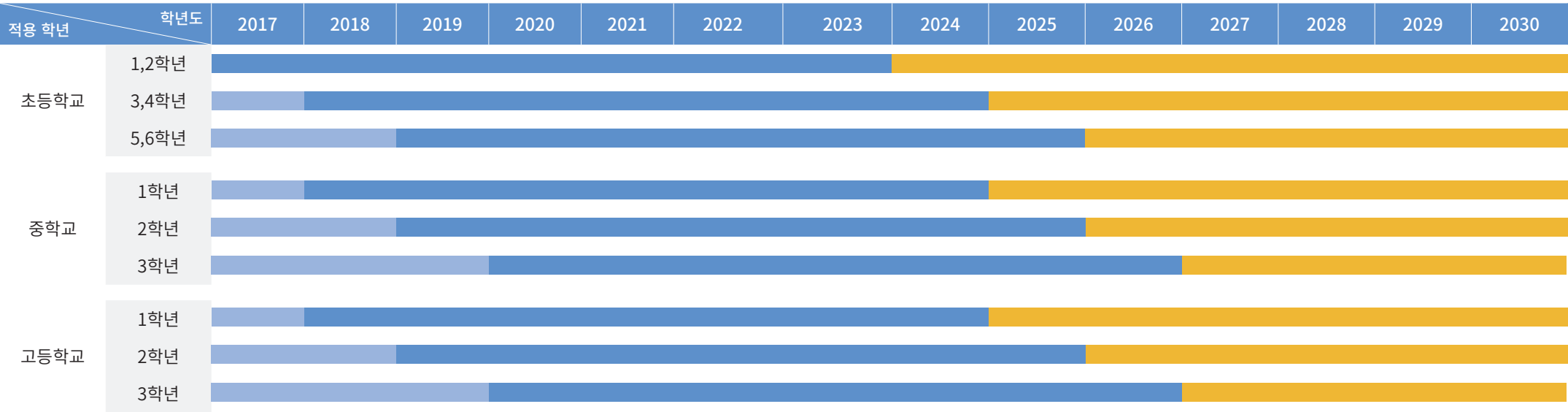


1.2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어떤 교육이 필요할까요?

1.3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2009 개정 교육과정은 2019년까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적용되었습니다. ■
2015 개정 교육과정은 2026년까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30년대 초·중·고등학교에 다닐 학생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새 교육과정이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같은 일정으로 적용될 것으로 가정

“ 새 교육과정은 2040년대에 20, 30대를 보낼 미래 청년들을 위한 교육계획입니다.
새 교육과정은 최소 20년 뒤 미래를 대비하며 설계되어야 합니다. ”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과 ‘학습 경험의 질 개선을 통한 행복한 학습의 구현’을 강조했습니다.

핵심 역량을 6가지로 제시하였고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인재상으로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설정하였습니다.

“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 ”

인간상

- 자주적인 사람
- 더불어 사는 사람
- 창의적인 사람
- 교양 있는 사람

핵심 역량

- 자기관리 역량
- 심미적 감성 역량
- 지식정보처리 역량
- 의사소통 역량
- 창의적 사고 역량
- 공동체 역량

역량을 강조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교육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제시하였으나, 교육 현장에서는 아직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창의융합형 인재상은 경제적 역량에 집중한 측면도 있습니다.

“ 추구하는 인간상, 역량, 교육목표 등에서
세계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태도에 관심이 부족합니다. ”

1.4
현재
우리 교육과정과
교과서는
어떠한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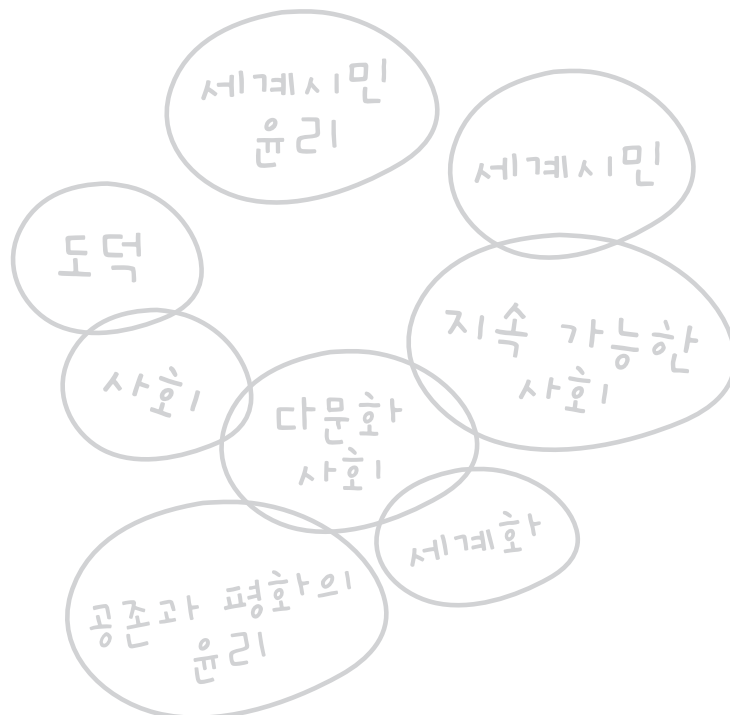
지금까지 교육과정은 어떠했나요?

오랫동안 교육과정은 ‘국가’에서 정한 ‘미래’사회에 맞는 ‘인재상’을 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경쟁교육에 내몰린 학생들의 삶은 돌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사실 그동안 세계시민으로서 삶을 강조하는 교육이 다양한 교과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왔습니다.

초등과 중등의 도덕과, 사회과를 포함한 다양한 교과 교육과정의 ‘다문화사회’, ‘세계시민 윤리’, ‘공존과 평화의 윤리’, ‘세계화’, ‘세계시민’, ‘지속 가능한 사회’ 등이 그 예입니다.

“ 하지만 이러한 교육 주제는 세계시민교육의 관점을 일관성 있게 강조하지 못하고 산발적이고 당위적으로 제시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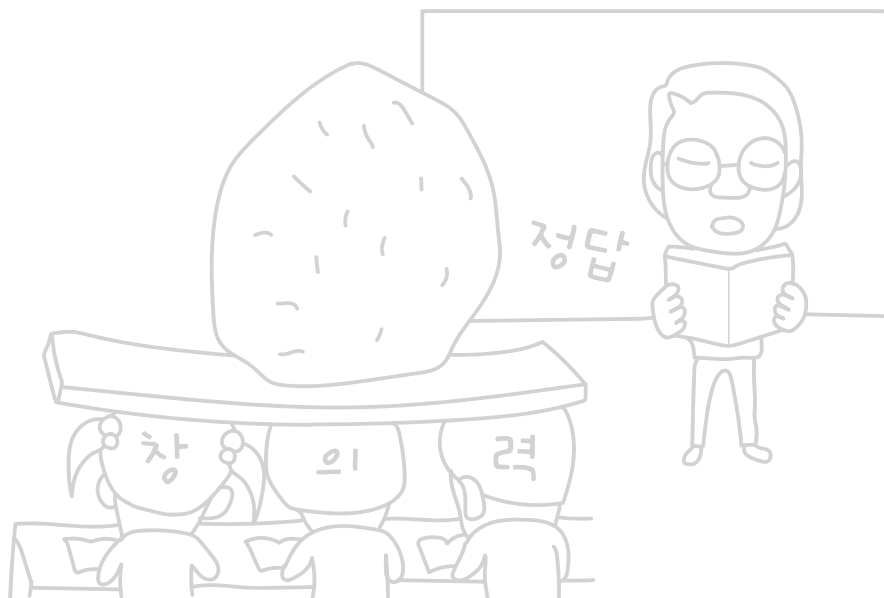
교육과정 총론과 교과별 성취 기준은 대부분 지식, 가치, 태도, 실천 등을 통합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과서가 교육과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현장에서 교육과정의 취지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과정과 교과서는 학생 개개인의 삶, 관점, 맥락이 배제된 가운데 기성세대의 시각, 국가적 차원의 접근으로 정제된 지식을 차분하게 안내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 정답으로 제시된 지식과 이론 앞에서 학생들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 역량인 창의적 사고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등을 함양하기 어렵습니다.

한 사람의 시민, 학생으로서 자신의 관점을 갖게 하기보다 무미건조한 지식을 이해하고 기억하도록 하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교과서 서술을 잘 읽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 가치, 태도, 실천 능력을 함양하기 어렵습니다.

학습자의 관점에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서술이 부족하고, 아울러 국제사회 저편에 있는 또 다른 시민에 대한 관심과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서술이 부족합니다.



교육과정 사례: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

☑ 지구촌의 평화와 발전

6사08-03



지구촌의 평화와 발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갈등 사례를 조사하고
그 해결 방안을 탐색한다.

6사08-04



지구촌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다양한 행위 주체(개인, 국가,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등)의 활동 사례를 조사한다.

교과 교육과정에 반영된 지구촌에 관한 주제는 지구촌의 평화와 발전을 위협하는 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세계적 차원의 주제를 부정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학생들에게 편견과 선입견을 심어줄 가능성이 큼니다.

학생들은 지구적 차원의 주제를 배우는 과정 중 다양한 관계에서 발생 가능한 상호 교류와 협력, 발전과 같은 긍정적 측면과 평화와 발전을 위협하는 갈등, 분쟁, 전쟁 등 부정적 측면을 균형 있게 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계시민교육은 교육 내용뿐만 아니라 교육 방법에서도 평화적으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현행 교과서는 빈곤과 기아 문제를 다룰 때 특정 지역 사람들을 도움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부각하여 제시할 때가 많습니다.

교과서 구성 사례: 초등 사회과

빈곤과 기아로 받는 고통을 강조하고 도움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다루게 되면 학생들은 이들에 대한 편견을 내면화할 수 있습니다.

사진 속의 어린이들을 보면서 지구공동체의 동등한 시민이라는 생각을 갖기에 앞서 시혜의 대상으로, 자신과 단절된 타인으로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큼니다.

빈곤과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조사해 봅시다
이번 시간에는

소윤이는 인터넷에서 **빈곤과 기아**에 시달리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의 모습을 봤다. 자료를 보고 빈곤과 기아 문제를 생각해 보자.



여전히 많은 어린이가 영양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발육 부진을 겪는다.

- 영상과 사진에 나타난 빈곤과 기아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 이 외에 빈곤과 기아의 원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2. 통일 한국의 미래와 지구촌의 평화

소윤이와 친구들은 지구촌의 빈곤과 기아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들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조사해 봤다.



빈곤과 기아 문제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자 모금 활동과 물건, 식량 등을 지원한다.

지구촌 사람들은 빈곤과 기아 문제를 해결하려고 모금 활동, 구호 활동, 캠페인, 교육 지원, 농업 기술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빈곤과 기아 문제는 그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촌 모두와 연결된 문제를 알고 서로 협력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빈곤과 기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출처: 초등 사회 디지털 교과서 6학년 2학기 150쪽

2

새로운 교육과정은 어떤 가치를 담아야 할까요?

- 2.1 미래 사회에 부합하는 교육의 가치, 목표, 인간상이 필요합니다.
- 2.2 평화문화를 만들어 가는 세계시민교육이 필요합니다.
- 2.3 세계시민성을 길러 평화문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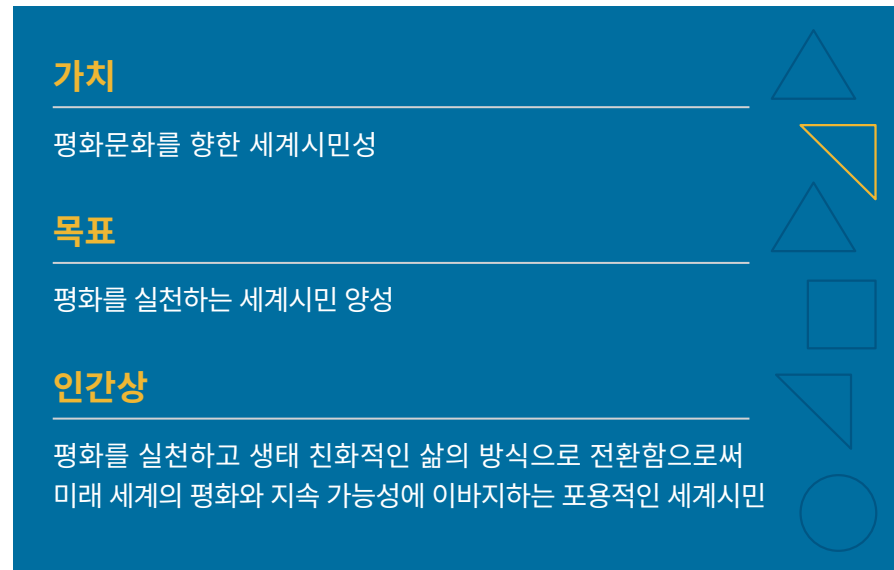
새로운 교육과정은 어떤 가치를 담아야 할까요?



2.1

미래 사회에
부합하는 교육의
가치, 목표, 인간상이
필요합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 다음과 같이 교육의 가치, 목표, 인간상을 제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가치	평화문화를 향한 세계시민성
목표	평화를 실천하는 세계시민 양성
인간상	평화를 실천하고 생태 친화적인 삶의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미래 세계의 평화와 지속 가능성에 이바지하는 포용적인 세계시민

불평등과 양극화, 차별과 혐오, 생명 경시, 노동인권 침해, 기후 위기와 생태계 파괴 같은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심화하고 있습니다.

세계시민으로서 이런 문제를 이해하고 책임감을 느끼며 해결 방안을 찾아 연대와 협력을 실천할 수 있게 해 주는 세계시민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불평등, 차별, 혐오, 극한경쟁, 생태계 파괴 등을 평화를 위협하는 폭력으로 인식하고, 사회정의, 포용, 생명존중의 평화문화를 지향하도록 해야 합니다.

새 교육과정에서 세계시민교육을 강조하는 것은 평화문화를 향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함께 발맞춘다는 교육적 의의가 있습니다.

- 유엔은 인류가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제시하였고 (2015), 교육에서 평화, 세계시민성, 인권, 성평등, 문화다양성, 지속 가능성을 강조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SDG 4.7).
- 유네스코는 평화, 국제이해, 지속가능성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증진하면서 이를 위한 국제규범을 제정해 왔습니다.
 - 유네스코 「국제이해·협력·평화를 위한 교육과 인권, 기본 자유에 관한 교육 권고」 (1974), 「평화·인권·민주주의를 위한 교육에 관한 선언 및 통합실천계획」 (1995), 유엔 「세계 어린이들을 위한 평화와 비폭력 문화를 위한 국제 10년」 (1999) 등

새 교육과정에서 함양하고자 하는 미래 사회의 핵심 역량으로 세계시민 역량을 제안합니다.



불평등, 차별, 혐오, 폭력, 분단의 원인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그 극복을 위해 공감, 연대, 협력을 실천하는 세계시민 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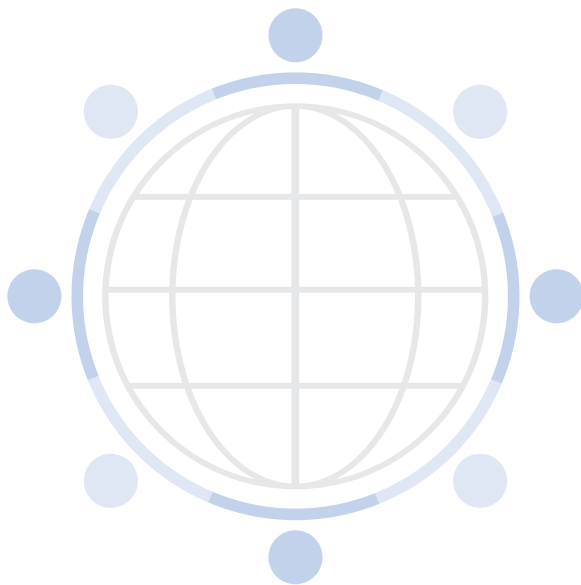


새 교육과정은
세계시민 역량을
함양해야 합니다.

세계시민 역량을 갖춘 학생은 개인, 지역, 국가, 세계 차원의 다양한 갈등과 폭력에 관심을 기울이고 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을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계시민 역량을 갖춘 학생은 다양한 삶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평화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연대와 협력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세계시민 역량을 갖춘 학생은 생태 감수성을 기르며 생태 친화적인 행동 양식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새 교육과정은
세계시민 양성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세계시민교육을 일관되게 적용하기 위해 새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이 교육과정은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추구해 온 교육 이념과 인간상을 바탕으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함양하여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새 교육과정



이 교육과정은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추구해 온 교육 이념과 인간상을 바탕으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함양하여 개인, 지역, 국가, 세계 차원에서 소통하며 평화문화를 만들 수 있는 포용적인 세계시민을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 2015 개정 교육과정에는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가치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가치와 추구하는 인간상, 핵심 역량의 정합성을 높여야 합니다.
-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 등 ‘미래교육’ 또는 ‘미래역량’과 관련한 담론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이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부족합니다.
- 새 교육과정을 학습한 학생들은 지금부터 20여 년 후 청년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평화문화를 만들 수 있는 포용적인 세계시민’은 시대적 요구에 부합합니다.
- 교육과정 구성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새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성장과 발달을 돕고, 토론과 탐구를 통해 비판적·통합적 사고 능력을 기르며, 협력적 학습과 학습자의 참여를 강화하는 등 학습자 중심 수업을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 ▣ 새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생활세계와 연계성을 높여 실생활 문제에서 출발하여,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세계 차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방법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학생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학교 급별 세계시민교육의 목표를 제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새 교육과정의
학교 급별 목표에
세계시민교육을
반영해야 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p>삶의 공간에서부터 세계에 이르기까지 나와 이웃, 그리고 세계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 의존하며 살고 있음을 알고 이들 삶의 평화를 위협하는 문제에 대한 감수성을 기른다.</p>	<p>생활세계와 세계적 차원에서 평화의 소중함을 알고 다양한 갈등과 폭력, 기후변화, 생태계 위기 등을 자기 삶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탐구할 수 있는 세계시민으로서의 태도와 실천 역량을 기른다.</p>
고등학교	
<p>삶의 공간에서 직면하는 갈등과 분단 폭력, 세계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평화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자신과 사회의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세계시민으로서의 태도와 실천 역량을 기른다.</p>	

초등학교의 세계시민교육은 학생들이 자신의 주변과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면서, 평화롭지 못한 조건에 있는 사람과 지역이 있음을 알고,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평화 감수성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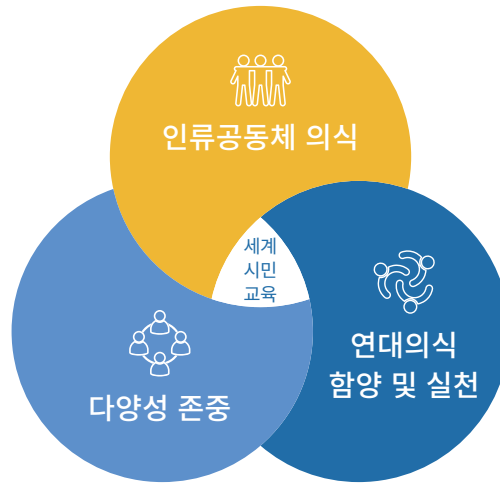
중학교의 세계시민교육은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폭력, 기후변화와 생태계 위기, 분단 폭력, 세계적 차원의 폭력 등을 평화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고민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고등학교의 세계시민교육은 폭력과 갈등을 포함한 여러 사회 현상을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평화문화를 만들기 위해 개인과 사회 구조의 변화 방향을 토의하고 그 변화를 위해 실천하는 행동 양식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2.2

평화문화를 만들어 가는 세계시민교육이 필요합니다.

유네스코는 세계시민교육을 “더 포용적이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필요한 지식, 기능, 가치, 태도를 길러주는 교육”이라고 정의하고, 그 세 가지 핵심 요소로 (1) 인류 공동체 의식, (2) 다양성 존중, (3) 연대의식 함양 및 실천을 제시합니다.



세계시민교육은 모든 이가 능동적이고 책임 있는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류공동체 의식과 다양성 존중 태도를 함양하며 연대와 협력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줍니다.

특히 오늘날 심각해지는 불평등, 차별, 혐오, 극한경쟁, 생태계 파괴 같은 문제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미래 사회를 대비할 수 있도록 이들 문제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사회정의, 포용, 생명존중의 평화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게 해 주는 세계시민교육**이 필요합니다.

나 혼자 잘 살기 위한 교육, 내 나라만 잘 살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세계와 더불어 평화롭게 잘 살기 위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평화는 전쟁과 같은 극단적 폭력뿐만 아니라 개인, 집단, 국가, 인간과 자연 차원에서 벌어지는 여러 형태의 **폭력을 줄여 나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아울러 인간 사회의 불가피한 갈등을 비폭력적 방식으로 해결하고 정의를 추구해 가는 역동적 과정입니다.

이는 폭력문화를 평화문화로 바꿔 나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평화문화는 평화를 단지 전쟁 없는 상태로만 이해하기보다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 방식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평화문화를 만들어 가려면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숨어 있는 폭력성을 깊이 들여다보고 바꿔 나가야 합니다. 그만큼 교육이 중요합니다. 특히 **너와 나, 그들과 우리는 다 같은 인간임을 인정하고, 다름을 두려워하거나 배척하지 않고 포용하며, 불평등과 부정의에 맞서 함께 실천**하는 세계시민성 함양이 필요합니다.

남북한의 평화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도 세계시민성 함양이 중요합니다. 쉽사리 치유되기 어려운 과거사의 고통과 상처를 극복하는 데는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면서 **세계시민으로서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려는 자세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3

세계시민성을 길러 평화문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Culture of Peace



3

선언이 아닌 실제 변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 3.1 학생 삶과 학교 문화의 변화를 이끄는 교육과정이어야 합니다.
- 3.2 시민교육의 다양한 주제는 통합적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 3.3 2022 개정 교육과정 실행 이전에 실천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선언이 아닌 실제 변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3.1

학생 삶과 학교 문화의 변화를 이끄는 교육과정이어야 합니다.

평화문화를 만드는 세계시민교육이 전 교육과정의 실행 원칙이자 모든 교과 구성의 핵심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 이 원리가 교육과정 총론과 교과 교육과정 성취 기준, 교과서, 교사의 수업계획과 실제 수업에서 일관성 있게 구현되어야 합니다.
- 코로나19 같은 지구적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와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해 모든 교과에서 평화문화를 지향해야 합니다.

세계시민교육은 추상적이고 거대한 담론을 제시하기보다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자기 삶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을 위한 대안을 찾아 실천하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 학생들이 주도성을 발휘하여 세계시민으로서 변화를 만들어 가는 역량을 기를 수 있게 교육과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학생들은 자신과 사회, 국가, 세계적 차원의 문제를 자기 삶과 연관 짓고 작은 것부터 주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교육과정에서 세계시민성을 강조함으로써 학교 문화를 평화의 문화로 바꿔 나가야 합니다.



- 역량 함양과 과정 중심 평가를 강조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 전반의 질적 변화를 이끄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교육과정 총론과 교과 교육과정에서 세계시민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학교에서 이를 실천할 때 학교 전체의 문화를 평화의 문화로 바꿔 갈 수 있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범교과 학습 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 안전·건강 교육, 인성 교육, 진로 교육, 민주시민 교육, 인권 교육,
다문화 교육, 통일 교육, 독도 교육, 경제·금융 교육, 환경·지속가능발전 교육 ”

이외에도 사회변화에 따라 다양한 범교과 학습 주제가 새롭게 요청될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교육 주제는 모두 학생 한명 한명을 향해 계획되고 실행됩니다. 한 학생이 시민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시민교육의 주제는 **학생의 관점에서 교과와 비교과 활동을 통해 조화롭고 통합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 존중, 배려, 사랑, 평화, 평등, 정의, 공감, 소통, 협력, 나눔, 인권 등의 가치는 세계시민 교육과 다양한 범교과 학습 주제가 공유하는 보편적인 교육목표입니다.
- 코로나19 팬데믹을 비롯한 세계적 위기는 앞으로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평화문화를 만드는 세계시민교육은 이러한 위기를 마주한 시민들이 협력을 통해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입니다.

3.2 시민교육의 다양한 주제는 통합적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3.3

2022 개정 교육과정 실행 이전에 실천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24년 초등 1, 2학년에 적용되기 시작해 2027년이 되어야 전면
실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전면 실행 이전이라도
다음과 같은 과제를 추진하여 실제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

첫째



세계시민교육의 취지와 방향에 대해
교사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교사들은 세계시민교육을 깊이 이해하며
가르칠 수 있도록 교수 내용 지식과
변혁적 교수학습법 역량을 높여야 합니다.

셋째



교과와 비교과 활동을 통해 적용 가능한
다양한 세계시민교육의 모델과
교육자료를 개발, 보급하여 적용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합니다.

넷째



일상에서부터 변화를 만들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변혁적 교수학습법의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해야 합니다.

다섯째



세계시민교육의 관점에서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함께 찾아야 합니다.

여섯째



평화로운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세계시민교육이 지향하는 가치를
학교 구성원 모두가 실천해야 합니다.

후기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이하 ‘아태교육원’)은 국내 세계시민교육 확산을 위해 교육부와 함께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프로그램을 2015년부터 운영해 왔으며, 2020년에는 한국 세계시민교육의 이론과 실천 심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그 결과물을 『한국 세계시민교육이 나아갈 길을 묻다』로 펴낸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아태교육원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상황에 비춰 평화교육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보고, 유네스코 평화교육의 관점에서 한국의 평화교육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연구를 북아일랜드 얼스터대학교 앨런 스미스 교수, 한신대학교 강순원 교수, 연세대학교 교육연구소 오덕열 전문연구원과 함께 수행하였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검토하는 회의에서 서울 양재고등학교 김병연 선생님은 국가 교육과정인 학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평화교육을 더 널리 확산하려면 이를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마침 정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아태교육원은 새로운 교육과정 총론에서 평화의 가치를 강조하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불평등과 차별, 혐오와 배척, 기후변화와 생태계 파괴와 같은 여러 형태의 폭력을 줄여 가는 과정에 세계시민성의 관점이 꼭 필요하다는 제안을 내기로 했습니다.

이 제안을 다듬어 가는 과정에서 아태교육원 이사회 의장이신 강순원 교수께서 중심 역할을 맡아주셨고, 올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김병연 선생님과 서울 송중초등학교 배성호 선생님, 아태교육원 김종훈 기획행정실장, 엄정민 연구개발실장, 이양숙 세계시민교육 연구소 부소장, 이연경 세계시민교육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저와 함께 제안서 집필에 매달렸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울러 평화와 세계시민성을 교육과정 총론에서 강조하자는 아태교육원의 제안에 적극 호응하여 올해 1월 7일 아태교육원과 공동으로 라운드테이블을 열어주신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최고진 회장님과, 2월 16일에 교육과정 제안을 검토하는 전문가 워크숍을 아태교육원과 공동으로 개최해주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성기선 원장님께도 감사의 뜻을 밝힙니다.

아무쪼록 이 제안서가 미래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을 위한 새 교육과정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 6월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원장 임현묵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APCEIU)은 한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조약 제2439호)에 따라 2000년 한국에 설립된 이후 평화문화에 기여하고자 국제이해교육과 세계시민교육 증진에 힘써 왔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아태지역의 세계 시민교육 발전을 위하여 연구와 정책 개발, 교육자와 청년 역량 강화, 자료 개발, 교사고류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발행처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 120 (구로동)

발행일 2021년 6월

기획편집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세계시민교육연구소

T 02-774-3360 F 02-774-3958 E igced@unescoapceiu.org

디자인 디퍼런스디자인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2021

간행물등록번호 OT-IGCED-2021-004